



## 處容郎 望海寺의 社會史的 性格

The Characteristics of Cheoyongrang at Manghae Temple Viewed from a Point of Social History

---

저자 (Authors)	金慶洙 Kim Kyung-soo
출처 (Source)	<a href="#">어문론집 29</a> , 2001.12, 153-166 (14 pages) <a href="#">The Journal of Language &amp; Literature 29</a> , 2001.12, 153-166 (14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중앙어문학회</a> The Society Of Chung-Ang Language & Literatur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5928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759285</a>
APA Style	金慶洙 (2001). 處容郎 望海寺의 社會史的 性格. 어문론집, 29, 153-16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1 15: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處容郎 望海寺의 社會史的 性格

金慶洙\*

〈차례〉

- I. 序言
- II. 本論
- III. 結言

## I. 序言

筆者는 『三國遺事』 所載 「望海寺 處容郎」條의 Text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석한 것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意見을 개진하려 한다. 그러한 論議 중에서 本稿에서 가장 重點적으로 다루려 하는 것이 望海寺의 創建 由來에 관해서다. 筆者는 이 望海寺의 창건을 社會史的으로 이해하여 望海寺가 佛敎 信仰의 布敎를 위해 창사되었은 물론이겠으나, 거기에 못지 않게 國土 防禦的 性格도 짙게 깔려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글 속에 나타난 龍과 處容에 대하여도 그 性格을 ‘渡來人’ 신분으로 규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筆者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蔚山, 浦港, 울진, 三陟, 江陵, 양양등 韓國 東海岸 地域의 踏査를 통하여 얻은 實證的 結

\* 중앙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菓를 바탕으로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9~10C에 걸친 당시의 동북아시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하는 기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조금만 확대 해석한다면 新羅를 중심으로 볼 때, 이 處容說話는 동아시아의 교섭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望海寺는 왜 세워졌으며, 그 役割이 무엇이었을까 이를 확인하려면 우선 문제가 될 만한 原典의 일부를 살피는 것이 그 순서이겠다.

#### 處容郎 望海寺

……於是大王遊開雲浦. 王將還駕 晝歇於汀邊. 忽雲霧冥暝 迷失道路. 怪問左右 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宜行勝事以解之’ 於是勅有司 爲龍翔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因名開雲浦. 東海龍喜. 乃率七子 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駕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1)

이 때에 대왕이 개운포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닷가에서 점심참으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뒤덮이어 길을 잃어버렸다. 왕이 괴상하게 여겨 측근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천문 맡은 관리가 말하기를 “이는 동해용의 변란이니, 좋은 일을 하여 풀어 주어야 하겠습시다” 하였다. 이에 천문 맡은 관원에게 명령하여 용을 위하여 근방에 절을 세우라고 하였더니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흩어졌다. 이 때문에 이 곳을 개운포(구름이 걷힌 포구)라고 이름을 지었다. 동해용이 기뻐하여 곧 아들 일곱을 데리고 임금의 수레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미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의 아들 하나가 임금을 따라 서울로 들어 와서 왕의 정치를 보좌하였는데 이름을 處容이라고 하였다.

1) 『三國遺事』 권2, 「처용랑 望海寺」, 민족문화추진회, 1982.

이 글은 三國遺事의 望海寺條의 일부로 望海寺 創建 說話와 雲霧가 나타났다는 걸힌 과정, 또 龍과 處容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望海寺를 왜 창건하였을까라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筆者는 望海寺의 창건 배경을 국토 수호를 위한 방어적 기능으로 이해하려 한다. 여기에 대하여, 한국의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불교 포교를 위하여 창건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불교 창사의 緣起說話로 생각해 왔다.<sup>2)</sup> 이러한 解釋이 나온 것은 이 책을 엮은 저자가 스님이며 이 책의 내용에 많은 불교적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處容을 佛者로 해석하는 학자가 많았다.

筆者는 望海寺의 창건이 불교 포교에 있었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보다는 숨겨진, 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곧 護國 佛敎를 포괄하는 국토 방위의 역할을 당시의 寺刹들이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筆者는 수년에 걸쳐, 수 차례 韓國의 東海岸 地域을 답사하였다. 東海岸 地域에 있거나, 있었던 新羅의 古刹들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신라의 고찰 중 바다에 접해 있었던 절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望海寺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로 닮은 구조와 지형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와 위치 확인만으로도 신라의 바닷가 고찰들은 국방상 필요로 창건되었을 수도 있다는 심증을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筆者가 찾은 東海岸의 新羅 古刹는 양양의 陳田寺址, 洛山寺, 燈明 洛伽寺, 感恩寺, 祇林寺, 石窟庵, 望海寺 등이다. 문헌을 통해서만 유추했던 사실들을 실제적인 답사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2) 황패강, 「항가연구서론」 1, 『고전문학연구』 2, 고전문학연구회, 1974.

## II. 本論

양양의 陳田寺<sup>3)</sup>를 답사하고 그 구조와 지세가 感恩寺와 흡사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곳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바다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심증을 얻었다. 그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洛伽寺, 感恩寺, 望海寺 등도 모두 비슷한 지세와 구조로 되어 있어 이들 사찰들의 창건 동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假說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이는 뒤에도 언급되었거니와 이들 사찰들은 불교 진흥을 위한 목적은 물론이고, 국가의 위급 시에는 국토 수호를 위한 기능도 수행했을 것이라는 필자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현장들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라의 고찰들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위급 시에 봉기하여 나라를 수호했던 僧兵 養成所의 초기 형태의 역할을 했다는 말이 된다. 역사적으로 僧兵이 국가 수호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임진란을 통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휴정·유정의 활약은 너무나 유명하거니와 그 승병의 모태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 보인다. 내친김에 우리의 사찰들이 외세에 대항한 근거를 찾아보자. 이를 방증하기 위하여 승병과 관련 있는 몇몇 사찰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의곡사<sup>4)</sup>

비봉산 동쪽 골짜기를 찾아들면 옛날 신라의 고승 혜통 조사가 세웠다는 고색 찬연한 사찰이 있다. 이 사찰은 신라 제30대 문무왕 15년(서기675년) 건축물로 조선 5백년 동안 성민의 대소법사에 쓰였다. 승병을 양성하여 왜적들의 침입을 막아 내려는데 큰 공헌을 남긴 이 사찰은 임진란 때 많은 남녀노소들이 피난했는데 왜적에 굴복하지 않고 모두 죽어 의곡사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집, “진전사” 항목 참조.

4) 이동술 편, 『한국사찰보감』, 우리출판사, 1997.10, 350면 참조.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2) 호국사<sup>5)</sup>

고려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이 절은 원래의 이름이 내성사였다고 한다. 고려 말기에 왜구를 막기 위해 진주성을 고쳐 쌓고, 승병을 기르기 위해 창건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절은 임진왜란 때는 승군의 근거지가 되었다.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함께 운명을 같이한 승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숙종 임금께서 호국사란 이름으로 재건하였다고 한다. 최근에 진주성을 정화하면서 일주문 자리가 마련되어 새로 세웠으며, 사찰의 건물들은 모두 근년에 새로 이룩된 것이다.

## (3) 골굴사<sup>6)</sup>

이곳 골굴사는 선무도<sup>7)</sup>의 수련장이다. 禪武道는 스님들의 정신적 수행의 한 방법이다. 과거 사찰에서 수행방법으로 내려오다 갑오경장 때 승병제도가 폐지되면서 선무도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 수련법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골굴사이다. 계곡 안쪽에 위치한 기림사의 진남루 또한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 역사에서 승병의 활약은 위기에 처할 때 나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불교에 귀의하여 불도를 닦으면서 이런 선무도 수련법으로 육체적 수련을 하였다. 이렇게 훈련된 승려들이 나라에 변란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승병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바로 기림사는 승병의 훈련중심지(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한다. 그 예가 지금도 진남루라는 군사적 성격의 건물이 남아 있다(성벽, 성문). 선무도 수행을 통해 익힌 수련법이 군사적 목적(무기화)으로 사용된 배경에는 이런 역사의 현상이 숨쉬고 있다. 승

5) 이동술 편, 전계서, 453면 참조

6) 이동술 편, 전계서, 31면 참조

7) 禪武道 : 동적 수련법을 통하여 심신의 안정을 구하고 해탈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것. 선무도→무술화→승병.

병의 양성 흔적은 지금도 기림사 진남루나, 송광사에 남아 있고, 표충사 유물 전시관에도 그 당시 승병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 (4) 안국사<sup>8)</sup>

본래 적상산 분지에 위치했던 이 사찰은 충렬왕 3년(1227), 월인화상이 창건한 것이라고도 하고, 조선 초 무학대사가 국가의 앞날을 위해 성을 쌓고 절을 지었다고도 전한다. 광해 5년(1613) 사찰을 중수하고 그 다음해에 창건된 적상산 사고를 지키기 위해 승병들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보경사 또는 사원사 등으로 불렸는데 이를 중창하고 안국사라 했다. 더러는 산성안에 있는 절이라 하여 산성사라고도 불렀다. 현재의 안국사는 본래의 위치가 양수발전소 상부댐(적상호)에 잠기게 되어 1992년에 옮겨 세운 것이다.

#### (5) 甲寺<sup>9)</sup>

계룡산 서쪽에 위치한 갑사는 백제이래 풍부한 불교문화의 본산이 되어 왔던 계룡산의 여러 사찰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천년 고찰로써, 백제 구이신왕 원년(420)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고, 갑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찰로 발전한 것은 백제 멸망 후의 통일 신라기의 일이었다.

위덕왕 3년(556)에 혜명대사가 천불전 및 진광명전, 대광명전을 중건하였고 후에 의상대사는 당우 천여 칸을 중수하고 화엄대학 지소를 창건하여 갑사는 이 때 신라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로 번창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갑사는 왜군에 대항하는 승병 궤기의 거점이 되어 당시 갑사 청련암에 주석하시던 영규대사는 왜병이 북상하자 800여 승려들을 이끌고 궤기, 충청도 의병장 조헌 선생의 의병과 연합하여 청주성

8) 이동술 편, 전계서, 275면 참조

9) 이동술 편, 전계서, 12면 참조

을 수복하고 충청도를 왜군으로부터 지켜 내는 큰 공을 세웠으나 금산 전투에서 800여 승병과 함께 장렬히 순절하셨고, 영조 14년(1738)에 건립된 경내의 표충원에 임진란의 대표적인 승병장 서산, 사명,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셨다. 갑사는 조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시 침입한 왜구들에 의하여 한꺼번에 소실되어 수년이 지난 선조 37년(1604) 대웅전과 진해당 중건을 시작으로 재건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다섯 절의 승병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거니와, 어쨌든 이 절들은 모두 천혜의 요새로, 수십에서 수천 명의 승병들이 매복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승병 제도는 조선 시대만이 아니라 신라 중기부터 면면히 있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사찰이 국토 방위를 위한 역할을 한 것은 사찰의 사회사적 임무도 있었음을 보여준 예이다. 이 절들은 물론 내륙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려 준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어적 기능의 초기 형태로 望海寺를 지목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논의한 신라의 고찰 중에서 望海寺와 맥을 같이 하는 고찰들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陳田寺址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에 있었던 사찰로 신라 禪門 九山の 효시가 되었던 迦智山派의 初祖 道義國師가 창건한 사찰이다.<sup>10)</sup> 도의는 선덕왕 5년(784)에 당나라에 가서 지장의 선법을 이어받고 헌덕 13년(821)에 귀국하여 이곳에서 수도하다가 입적한 큰스님이다.

고려 중기의 一然 스님이 이 절의 長老였던 大雄의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 절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지금도 국보 122호로 지정된 삼층석탑과 보물 439호인 부도가 있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은 절의 위치이다. 양양

10)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에 있던 절로서 폐사가 된 지 오래다. 지금은 사찰 복원 준비 중이다. 이동술 편 『한국사찰보감』, 403면 참조

의 북방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천연의 요새처럼 절터는 산자락에 가려져 있다. 그러나 조금만 뒷동산으로 오르면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그리고 그 바다는 포구처럼 외래객이 접근하기 쉽게 된 지형이다. 어딘가에 바다를 내려다보는 망대가 있을 법하다. 그 망대에서 바라보면 바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형이다. 望海寺보다 산의 높이가 낮을 뿐 그 구도가 흡사하다.

낙산사는 널리 알려진 절이다.<sup>11)</sup> 이 절은 觀音菩薩이 머무는 절로, 문무왕 11년(671년)에 義湘이 창건했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이 절에는 많은 고승들의 설화가 있다. 바닷가 바위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 절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觀音信仰이 중심이다. 觀音信仰 역시 갖가지 재앙과 침탈에 시달리던 민중을 구하려는 의도가 짙음은 물론이다. 이 절의 위치도 바닷가 언덕 위에 세워져 바다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다.

燈明 洛伽寺는 명주군 강동면 정동리 패방산 중턱에 있는 사찰이다.<sup>12)</sup> 新羅 善德女王(780~784년) 때 자장이 창건하였다. 신라 말에 병화로 소실되었는데 고려 초기에 중창하였다. 이 절에는 세 개의 석탑이 있다고 전한다. 그 중 하나는 앞바다의 물 속에 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수중탑을 찾기 위하여 여러 번 수중 탐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산 속에 있는 절이 병화로 신라 말에 소실되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보아도 외진 이 깊은 산 속에 병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절의 성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곧 승병이 있었다는 징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조용한 사찰에 병화가 있을 리 없다. 현재 이 절을 오르면 좋은 약수가 흐르고 그 약수터의 바로 왼편에 고탑이 있다. 이 곳이 바다를 바라보는 망루가 아닌가 한다. 실제로 포구의 바다가 절경을 이루며

11) 이동술 편, 전계서, 59~61면 참조

12) 이동술 편, 전계서, 59면의 낙가사 참조

한눈에 조망된다. 약수의 왼편으로 한 오백 미터쯤 떨어져 절이 있다. 이 절도 진전사나, 望海寺 같은사처럼 산에 가려 있어 쉽게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望海寺와 함께 동해안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절이 感恩寺이다.<sup>13)</sup>

월성군 양북면 용당리에 있었던 이 절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건립되었다. 이 절의 주변에 석굴암, 기림사, 굴골사 같은 고찰들과 유기적 관계도 있었다. 이 절은 신문왕(681)이 문무왕의 뜻을 이어, 창건한 절로 왜구 격퇴가 주목적이었다. 지금은 폐사가 되었으나 국보 112호로 지정된 삼층석탑 2기는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큰 것이다.

1960년과 1979~1980년에 걸친 발굴로, 절의 전모는 밝혀졌거니와, 삼국 유사의 기록대로, 금당 바로 밑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어, 용이 되어 나라를 수호하는 부왕 문무의 넋이 들어오도록 구조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천년 이전의 당시에는 이곳의 바다 수면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으며, 지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望海寺는 處容郎條에 나오는 절로, 청량면 울리 영취산에 있는 절이다.<sup>14)</sup> 헌강왕(875~885)의 명령으로 짓게 된 이 절은 신방사라고도 한다. 옛 신라의 절은 잦은 전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옛터를 중심으로 현재 대웅전, 요사채 등이 복원되어 있다. 그것도 모두 근자에 중건된 것이라 옛모습은 석조부도 귀면와 등 기와 조각 등에서만 엿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옛 절터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望海臺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 어렵곳이 짐작할 뿐이지만 이는 감은사의 利見臺만큼 중요한 누대가 아닐 수 없다.<sup>15)</sup> 이 망해대의 존재로 말미암아 감은사와의

13) 이동술 편, 전계서, 11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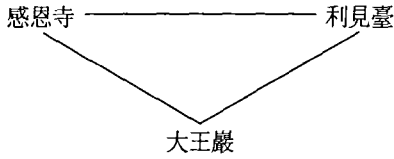
14) 이동술 편, 전계서, 111면 참조

15) 이 망해대는 울산 향토 사학자 이유헌 선생이 발견하였다고 전한다. 그는 『울산향토사연구』라는 저서도 있고 울산지역 향토사 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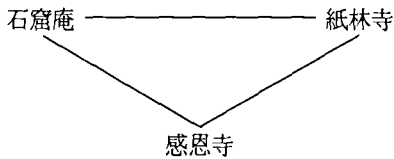
구도가 같음을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으나, 바다를 조망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여기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 쪽 포구의 물 속에 處容巖이 있다. 이 處容암은 포구로 바다로부터 외래객이 들어오기 좋은 지형이다. 또 당시의 정황을 보아도 도래인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던 곳이다. 이 곳을 진호하는 것은 통치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긴급조치다. 여기에 절을 짓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망해대를 만들어 이 곳을 지키려는 의도가 望海寺의 창건 동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동해안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신라 절터들, 곧 陳田寺址, 洛山寺, 燈明 洛伽寺, 感恩寺, 望海寺 등에 대하여 그 위치와 창사 배경을 살펴봤거니와, 이제 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望海寺는 望海臺와 處容巖으로 구성되어 있고, 感恩寺는 利見臺와 大王巖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절의 위치를 눈여겨보면 이곳은 각각 동해의 요충지로서 각종 물산의 집산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충지는 정책적으로도 이를 수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감은사의 뒤편으로 기림사라는 대사찰이 있다. 이 기림사는 조계종의 본사로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렸던 절이다. 신라 시대에는 이 사찰도 승병 양성과 관련이 깊었다. 더구나 가까이 석굴암이 동해를 굽어보고 있는 터다. 또 하나 봉덕사종의 명문에 감은사의 ‘檢校使肅政臺令兼修城府令檢校感恩寺使角干’ 金良相 이름이 발견된다. 이는 感恩寺가 동해를 지키는 수군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왜냐하면 봉덕사종 소리는 당시 군사들을 소집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변란이 발생할 때 비상용으로 이 종소리가 사용된 것이다. 그런 종을 주조하는 관리로 김양상이 관여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강왕의 개운포 나들이는 이 지역의 민심을 안무하려는 순행이었을 것이고, 望海寺 창건은 감은사의 연장선상에서 동해 개운포 지역을 관할하는 방어사를 구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望海寺-望海臺-處容巖이 삼각 구성으로 된 것도



의 구도와 일치되고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도 같은 삼각 벨트로 묶여진다.



이 같은 구도는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으나 어떤 목적하에 배치한 의도적 구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유추하면 燈明 洛伽寺도, 陳田寺도 이러한 삼각 벨트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울산 향토 사학의 리더인 이유수님도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sup>16)</sup>

“望海寺는 위와 같은 신령스러운 산에 자리를 잡았으며 處容설화에서 동해용을 위하여 건치한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때 용을 위하여 절을

16) 이유수, 『헌강왕 순행과 望海寺·處容郎』, 울산문화원, 1996.

지어주고 신라는 그 반대 급부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감은사의 창건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文武王慾鎮倭兵 故始創此寺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 하여 감은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하였으니, 이러한 것을 본다면 필경 望海寺도 문무왕의 기도처럼 왜구의 진압과 동해 뱃길의 안전을 얻으려 하였을 것이다. 실은 성덕왕 21년에 모별군성을 쌓아 일본군 침입의 길을 막았고, 동왕 30년에는 일본국의 병선 3백 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변을 침습하므로 왕이 정병을 출동시켜 대파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 Ⅲ. 結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望海寺라는 절을 세우라는 명령이 있자마자 운무가 견혔다는 것은 방어적 성격과 상통한다.

그러면 운무가 견히고 나타난 동해용의 정체는 무엇이며, 處容은 누구인가가 문제가 된다.

필자는 이미 용과 處容의 성격을 도래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sup>17)</sup> 갑자기 생긴 일기의 변화는 외래인과 현강왕 일행의 대결로 해석된다. 이곳에 현강왕의 순행이 있는 줄 모르고 상륙한 이 도래인 무리는 현강왕 일행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다. 소규모 도래인으로서 왕의 대규모 부대와 대적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하나를 왕에게 바치며 화해의 동작을 취한 것이다. 이 아들이 處容이다. 외지에서 도래하여 습합, 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간에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운무가 뒤엎어 길을 잃은 것으로, 상징적 표현을 했을 뿐이다.

17) 줄고, 전계 논문, 221~222면 참조.

역사적으로 볼 때, 도래인은 處容만이 아니다. 석탈해, 허황후, 혁거세, 김알지 등등 모두가 渡來人 또는 天降人 들이다. 시대적 차이로 인해, 좀 더 현실화하여 등장한 것이 處容이라 할 수 있다. 이용범님의 아라비아 상인설이나 정수일의 서역 교류설도 결국 도래인의 성격이다.

결론적으로, 『三國遺事』에 있는 望海寺는 불교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開雲浦 부근을 구호하는 방어사적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또 동해용과 處容은 渡來人 성격으로 신라에 습합한 인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고대 동아시아의 교섭 관계를 암시하는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은 新羅 憲康王時代의 敍事詩이며, 주인공은 憲康王이다. 處容은 憲康王 주연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단역배우에 불과함을 거듭 밝혀 두고자 한다.

**핵심어 :** 사회사, 처용, 도래인, 신라

\*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Cheoyongrang at Manghae Temple Viewed from a Point of Social History

Kim, Kyung-soo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background narrative of Cheoyong-song. Especially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evelation of characteristics of Manghae Temple in the background narrative from the point of social history.

Until recently, the research of scholars told that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was for the propagation of Buddhism. About that, I made a conclusion that the Temple is both for the religious propagation of Buddhism and the hope for protection of the province. The verification was made by visiting Silla Dynasty temples along the East Sea. In other words, the old temples along the East Sea were built as the sites of protection for the local province. This argument can be approved by the monk soldier system that ensued soon.